

“과학·기술·혁신 통해 ‘빠른 성장’… 지속 가능한 평화 추구”

취임사에 담긴 메시지

‘자유’ 35번 최다, ‘국민’ 15회 언급
“번영과 풍요 바탕에는 ‘자유’ 존재
공정한 규칙 속 연대·박애 정신을”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자유·국민’을 강조했다. 그동안 헌법 가치 수호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의 자유’를 강조한 점이 그대로 취임사에 녹아든 셈이다. 국정 비전 슬로건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윤 대통령의 의지도 취임사에 그대로 담겼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취임식 취임사 시작부터 자유를 언급했다. 취임사에서 윤 대통령은 35번에 걸쳐 ‘자유’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이어 국민(15회), 세계(13회), 평화(12회) 등 순으로 단어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세계적인 문제인 팬데믹·식량·에너지 위기, 교역 질서 변화 및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등 해결 차원에서 국민이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있었던 것으로 본 윤 대통령은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을 바로 자유의 확대”라고 말했다.

◆尹, 자유’ 35번 언급하며 최우선 강조
윤 대통령은 자유를 ‘보편적 가치’로 규정하며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지된다면 나와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받게 된다”고도 우려했다. 이어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니다”라며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이런 것 없이 자유 시



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 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 한다”며 “개별 국가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기아와 빈곤, 공권력과 군사력에 의한 불법 행위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자유 시민으로서의 존엄한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모든 세계 시민이 자유 시민으로서 연대해도 와야 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국정 비전 슬로건인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가 취임사에 그대로 녹아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모두가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하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하는 이유로 ‘민주주의 위기 극복’도 내세웠다. 민주주의 위기로 인해 정치가 제 기능하지 못한 것으로 진단한 윤 대통령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라며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돼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반지성주의를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어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처해있는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책임을 부여받게 된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세계 시민과 힘을 합쳐 국내외적인 위기와 난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尹, 양극화·갈등 해소에 노력할 것

윤 대통령은 또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문제 해결 차원에서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 제고로 양극화 및 갈등 극복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는 것”이라며 “과학과 기술, 혁신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며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강조하고, 국정 과제에도 많이 반영한 과학 기술 등 ‘미래 먹거리’ 관련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과학과 기술, 혁신은 우리나라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써 과학 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낸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연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北 비핵화·지속 가능한 평화 의지도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 북한을 향한 메시지도 담았다. 북한이 올해 초부터 무력 도발을 이어가는 만큼 윤 대통령

은 ‘비핵화·지속 가능한 평화’에 대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평화가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고 규정한 뒤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꽂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며 “한반도 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며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그룹에 들어가 있는 점을 언급한 뒤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도 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시민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확대하는 데 더욱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국제사회도 대한민국에 더욱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며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때 국내 문제도 올바른 해결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최영훈 기자 chaeyoungkr@metroseoul.co.kr

0시 합참 보고부터 외빈 만찬까지 ‘빼곡’

숨가쁜 첫 공식 일정

취임식 전 현충원 방문 참배
대통령실선 외국사절단 접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윤 대통령의 임기는 군 통수권을 이양 받으며 시작됐고, 취임식과 외빈 만찬 까지 쉴 틈 없는 대통령 첫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0시 정각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지하에 마련된 국가위기 관리센터 상황실에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로부터 군사대비태세, 북한 동향 등을 보고받았다.

같은 시간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임기 개시를 알리는 타종 행사가 진행됐으며 제20대 대통령이라는 의미로 선발된 20명의 국민대표가

함께 33번을 타종했다.

국민대표 20명은 청년 창업가, 다문화 가정 출신의 이장, 장애인 국가대표 수영선수 등 지역, 세대, 직능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대표성을 고려해 선발됐다.

윤 대통령은 서초동 자택으로 이동해 잠깐의 휴식을 취한 뒤 이날 오전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순국선열을 참배하기 위해 집을 나서며 주민들이 여는 취임 기념 짧은 축하행사에 참석했다. 이후 국립 서울현충원으로 곧장 이동한 윤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여사도 동행하며 김 여사는 공식 석상에 처음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취임식이 열리는 국회 의사당으로 이동해 국회 정문에서 본청 앞에 마련된 연단까지 도보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한 후 대구 남자 어린이와 광주 여자 어린이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며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식에

참석한 시민들과 악수를 하거나 주먹 인사를 나누며 김 여사와 함께 약 180m를 걸어갔다.

취임식은 10시부터 시작하는 식전 행사 ‘다시, 대한민국’과 11시부터 시작하는 본행사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구성됐으며 본행사의 마지막은 윤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 내외를, 김 여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환송하는 순서로 마련됐다.

취임식 본행사는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외빈과 각계 대표인사, 초청 국민 등 4만명이 운집한 가운데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한 윤 대통령은 이후 집무실에서 취임식에 참석한 외국 사절단을 접견한 뒤 오후 4시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리는 경축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다시 찾았다.

윤 대통령의 취임식 마지막 일정은 서울 종로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리는 외빈 초청 만찬이다. /박정의 기자 pathfinder@

결단·투자 필요 시점… 친기업 행보 기대

>> 1면 ‘위기의 반도체’서 계속

정부는 친기업 행보로 위기 극복을 도와야 한다는 것.

당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거취가 불안정한 상태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 60% 이상이 사면에 긍정적이었지만 이전 정부가 결국 사면을 포기한 탓에 여전히 가석방 신분이다. 이 때문에 ‘취업제한’ 등 반도체 부문 투자뿐 아니라 ‘의미 있는 M&A’ 등 혁신에 어려움이 크다는 전언. 윤 정부가 오는 8월 15일 광복절에나마이 부회장을 사면해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SK 역시 최태원 회장이 실트론 인수 과정에서 사의를 편취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로 반도체 계열사간 시너지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은 집중 투자와 과감한 결단이 필수적이지만, 그동안 여러 악재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커진 게 사실”이라며 “새로운 정부가 종수들을 견제하면서 ‘사법리스크’에 시달려왔던 만큼, 윤

/김재웅 기자 juk@